

차례

1. 들어가는 말
2. 김사량 『노마만리』의 창작배경
3. 『노마만리』 속에 나타난 중국체험과 중국인식
 - 3-1 북경체험과 근대도시 인식
 - 3-2 농촌체험과 항전현실 인식
 - 3-3 해방구 체험과 사회주의 인식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1940년대 초반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가장 격렬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 일제는 동서로는 태평양 한 복판에서 중국내륙에 이르기까지, 남북으로는 동남아 군도(群島)에서 북만주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대한 전역(戰域)에서 분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일제는 인공과 자원, 경제력에 있어서 심각한 과출혈에 직면해 있었다. 비록 중국내륙에서는 승전을 거듭했으나, 여타 전선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일제는 식민통치하의 여러 나라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조선에 대해 가혹한 수탈을 감행했다. 수많은 조선의 청년들이 중국내륙과 태평양을 연하는 각지에서 일부는 전투원으로, 일부는 노동자로 비참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일제 식민지국들의 항일민족운동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었다. 주지하듯,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장개석 정부와 중경에 소재하면서 광복군을 지원하거나 테러 또는 요인암살 등의 방법으로 일제에 대항했다. 또한 조선의용군은 연안과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八路軍)과 게릴라 전술을 펼치며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다.

다른 한 편으로 이 시기에는 문예활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극심해져, ‘협력’과 ‘저항’의 두 극단에서 택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억압적 상황이 전개되어, 일제에 협력하거나 우회적으로 저항하는 문학이 출현하였다.⁴⁾ 본 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작가 김사량(金史良, 본명은

1) 이 논문은 교수와 대학원생 2인 공동연구 논문으로 저자2인은 BK21사업(2008학년도) 신한중문화진략사업단 연구교수와 참여 대학원생임.

2)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과정(piaomh@naver.com)

3)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BK21 연구교수(parknamyong@hanmail.net)

4) 김재용, 「일제말 김사량 문학의 저항과 양극성」, 『실천문학』, 서울 : 2006년 가을호, pp. 501~503

金時昌) 또한 ‘협력’과 ‘저항’ 사이의 실존적 고뇌 속에서 결국 ‘저항’을 선택한 인물이다.⁵⁾

김사량은 일본 제국주의의 지친 얼굴 위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던 1945년 초여름, 중국공산당과 조선의용군이 항쟁하던 연안 부근의 태항산 근거지⁶⁾를 방문하였다. 이 때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삼아, 해방 후인 1947년 펴낸 보고문학이 바로 『노마만리』이다. 그는 1939년과 1945년, 총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했다. 그 결과물로 씌어진 것들 가운데 「北京往來」(1939)와 「에나멜 구두의 포로」(1939)와 같은 짧은 수필을 제외하면 비교적 잘 알려진 것이 단편소설 「鄉愁」(1941)와 장편 기행서사 『노마만리』이다. 이 중 『노마만리』는 작가가 중국에 체류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이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고, 북경 체류기와 태항산으로의 탈출기, 그리고 태항산에서의 감회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노마만리』는 한 진보적인 조선 청년이 당대 중국의 상황들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가를 드러내 주는 중요한 보고문학 자료이다. 이미 미국인 부부인 에드가 스노우(Edgar. P. Snow)와 님 웨일즈(Nym Wales, 본명 Helen Poster Snow)는 『중국의 붉은 별』(1938)과 『아리랑』(1941)을 통해 각각 연안에서 항일투쟁 중인 마오쩌둥(毛澤東)과 조선인 혁명가 김산(金山, 본명 張志樂)에 대한 인터뷰를 남긴 바 있다. 이 밖에도 중국의 좌익 작가들 가운데서 보고문학의 성격을 지닌 작품들이 30년대를 기점으로 다수 등장하였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 해방구에서 그러한 풍조는 더욱 활황을 이루었다.⁷⁾ 이 시기 좌익 문단의 그러한 현상들은 러시아 작가 트레짜코프(Sergey Tretyako)가 내세운 ‘사실문학론’에 힘입은 바가 크다.⁸⁾ 김사량의 『노마만리』 또한 이러한 문단의 분위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중국인이거나 서방인이 아닌 조선인으로서, 중국의 해방구와 조선의용군의 근거지인 연안과 태항산 일대를 직접 탐방하여 남긴 장편의 기록으로는 『노마만리』가 최초라 할 수 있다.⁹⁾

그러나 『노마만리』를 포함한 김사량의 작품들은 해방 이후 상당히 긴 시간동안 문학계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김사량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그가 세상을 떠난지¹⁰⁾ 30

5) 일제 암흑기에 대응하는 문인들의 방식으로는 1. 친일 혹은 소극적 저항으로서의 일제부역, 2. 절필과 은거라는 ‘내적 망명’, 3. ‘골방에서 기약 없는 글쓰기’, 4. 국외로 탈출하여 항일운동에 가담 등이 있다. 유임하, 「사회주의적 근대 기획과 조국해방의 담론」, 『한국근대문학연구』, 태학사, 2000, p.175 주석 참조. 김사량은 위의 네 가지 형태에 모두 대응되는 작가로 볼 수 있겠다.

6) 엄밀히 말하면 김사량은 당초 계획과 달리 연안까지 이르지 못하고 태항산 근거지만을 탐방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안우식의 『김사량 평전』, 서울 : 문학과 지성사, 2000, p.329 를 참조하라. 그러나 김사량이 귀국 후에 자신의 기행(紀行)을 「연안망명기」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바 있고, 태항산 지구 또한 넓은 범주에서 볼 때 연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기에, 본 고에서는 연안과 태항산 지구를 구분하지 않고 기술하겠다.

7) 唐金海, 周斌主 編, 『20世紀中國文學通史』, 上海 : 東方出版中心, 2003, pp.195~196

8) 세르게이 트레짜코프는 1924년~1925년 사이에 북경대학 노어노문학과 객원교수 겸 『쁘라브다』지 주중 통신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 당시 집필한 희곡 「노호하라, 중국여여!」는 기존 문학의 형식에 사실문학의 형식을 결합한 것으로, 당시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었다. 정명자, 『인물로 읽는 러시아 문학』, 서울 : 한길사, 2001, pp.241~241 참조. 한편 볼셰비키 혁명 이후의 러시아 보고문학이 중국의 1920년대 이후의 문학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王文軍의 「論20世紀30年代中國報告文學的文体特質 : 宣傳性」(『中國學』第24集 2005. 8, pp.169~170)을 참조할 것.

9) 김사량 이외에도 연안과 태항산 등지에서 항일활동을 펼친 문인으로는 김학철과 김태준을 꼽을 수 있다. 김학철은 황포군관학교 졸업 후 조선의용군에 가담하여 활동하다 1941년 ‘호가장 전투’에서 일군의 포로가 되어 형무소 생활을 하다 해방과 함께 출옥한 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작품활동을 계속하였다. 그의 항일운동을 모티브로 하여 창작된 작품들로는 『격정시대』, 『해란강을 말하다』, 『태항산록』, 『항전별곡』 등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호웅, 김해양 편저, 『김학철 평전』, 서울 : 실천문화사, 2007 참조할 것. 한편 김태준은 1944년 11월 27일, 아내인 박진홍과 연안으로 탈출하여 항일 활동을 전개하였고, 해방 후 귀국하여 『연안행』이라는 기행문을 남겼다. 김태준은 1949년 남로당 특수정보부장의 신분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11월 수색의 군 처형장에서 총살형을 당하였고, 박진홍은 한국전쟁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용직 지음, 『김태준 평전』, 서울: 일지사, 2007, pp.609~610을 참조할 것.

여 년이 지난 1980년대에 이르러 구체적으로”¹¹⁾ 연구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우선 그가 3,40년대에 일본어로 창작활동을 했다는 점과, 40년대 초에 씌어진 그의 『ムルオリ島(물오리섬)』과 『太白山脈』이 어용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 그의 문학을 친일문학으로 규정해왔기 때문이다.¹²⁾ 또한 분단 이후에는 그의 친북 문학활동 이력이 그의 작품 연구를 금기시켰다.¹³⁾ 북한에서도 김사량에 대한 연구는 미진했는데, 이는 그가 “연안파라는 비(非) 김일성계의 계보적 성분”¹⁴⁾을 지녔다는 이유로 1987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의 항일 혁명가로서의 명예가 복권되었기 때문이다.¹⁵⁾ 다행히 김사량 본인과 그의 작품들에 대한 위의 오해와 편견들은 90년대 이래로 많은 문학비평가들과 학자들에 의해 문제시되었고, 그의 작품들에 대한 연구들도 국문학계와 일문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¹⁶⁾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문학계에서는 김사량의 중국체험에 대해 자세히 논한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¹⁷⁾

김사량의 『노마만리』는 당시 조선의 한 진보적인 지식인이 중국의 북경과 농촌, 그리고 항일근거지를 체험하면서 해방후 조국의 근대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중요한 계

10) 김사량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으로 후퇴하던 대오를 따라가지 못하고 낙오한 이후로 실종되었는데, 아마 이 때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우식, 위의 책, pp.344~348 참조.

11) 김은정, 「김사량의 초기작품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제17호, 서울 : 한국어문학연구회, 2003. 2, p.350

12) 임종국의 『親日文學論』(서울 : 민족문제연구소, 2002)은 일제시기 문학의 친일 문제를 본격적으로 펼친 최초의 기념비적 성격의 저작이다. 이 책의 작가 리스트에는 김사량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일본 문단의 주목을 받았고, 일본어 글쓰기를 주로 했으며, 장편 『太白山脈』이 어용잡지인 『國民文學』에 작품을 게재한 이력이 있다. 그러나 임종국은 김사량의 『太白山脈』이 “오직 시국적인 것만 일삼고 일본 정신의 선전에만 급급하던 작가 일파들”의 작품과 대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海軍行」(1943)이나 「바다의 노래」(1943)가 ‘해군사상의 보급’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김사량의 작품들 전체를 개관해볼 때, 그는 “시국적 선동력이 미약한 작가”였다고 말하였다. 김재용은 김사량이 「天馬」(1941)에서 “창씨개명”과 “일본어 창작” 비판했으며 태항산으로의 망명을 통한 “우회적 글쓰기”를 실천했다는 근거로 그를 저항과 비협력의 문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김재용의 『협력과 저항』 제4장 「김사량-망명 혹은 우회적 글쓰기의 돌파구」(서울 : 소명출판, 2004)를 참조할 것.

한편 그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친일’, ‘협력’, ‘저항’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개괄하자면 다음과 같다. 임종국은 비록 본격적인 친일문학 논쟁을 이끈 선구자로 평가할 수 있으나 ‘친일문학’이 문학에 국가관념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맹점을 갖고 있었다. 윤해동은 임종국이 제시한 ‘친일’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친일’ 대신 ‘협력’이라는 용어를 제시했다. 방민호는 「일제말기 문학인들의 대일 협력 유형과 의미」(『현대문학연구』 22집, 2007. 8)라는 논문에서 윤해동의 ‘협력’개념이 ‘친일’개념보다 “일제말기 문학인들의 체제 동조 현상을 객관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윤해동은 다른 한편으로, ‘협력’이 ‘저항’을 수반한다는 논의를 펼침으로써 저항문학의 가치를 축소해버렸다. 김재용은 『협력과 저항』(서울 : 소명출판, 2004)에서 윤해동의 논의를 보완하여 “협력과 저항의 상호 배타적 존립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저항과 협력이라는 말을 ‘친일문학’이라는 개념과 혼용하면서 이것을 “자발성”이라는 가치론적 측면과 단단히 결부시”켰다. 즉 협력 또는 친일은 자발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방민호는 “전체주의는 호명 및 동원 메커니즘”이며 “선전과 선동에 의한 체제적 협력”이 보편화되는 메커니즘이므로, “자발성”개념으로 ‘친일문학’을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방민호의 위의 논문을 참조할 것.

13) 안우식의 『김사량 평전』 제6장, 「좌절과 모색의 나날들」과 사회영의 「식민지 작가 김사량 연구」(『日本語文學』 第29輯, 2006. 1, p. 264) 참조

14) 사회영, 위의 글, p. 264

15) 안우식, 위의 책, p.11

16) 대표적인 이들로는 국문학자로 김윤식, 김학동, 김재용 등을, 일문학자로 추석민, 사회영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2002년 8월, 한국의 문인 17명이 참가한 김사량 기행 답사와 그 결과물로서 씌어진 김남일의 「시계중이에 쓴 역사 - 김사량의 『노마만리』 행적을 따라서」(『실천문학』, 2002, 겨울호)는 반 세기 전 김사량의 경험을 과거와 현재가 빚어내는 아우라 속에서 재구성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7) 『노마만리』에 대한 중문학계의 최근 연구성과로는 이춘매의 「金史良의 <驚馬萬里> 연구」(『한중인문학연구』 제23집, 2008. 4)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에드가 스노우의 『서행만리』에 대한 소개가 번다하고, 『노마만리』의 내용 가운데 태항산에서의 중국 체험에만 치중하여 서술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김사량의 창작동기와 북경 체류 기간이나 연안으로 가는 도정에서의 중국 체험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못했다.

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일체의 멸망을 예견하면서, 조국의 자주적 재건을 위해 어떠한 이상향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고심했던 듯하다. 중경과 연안, 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중국과 마주하면서, 어떤 길이 바람직한 길인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졌고, 부패한 국민당 정권과 그에 기생하는 임시정부에 대한 미련을 지우고 과감하게 연안으로의 위태로운 노정에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리고 그의 연안행은 그로 하여금 사회주의적 근대기획에 커다란 확신을 안겨 주었다. 그러한 확신은 귀국 후 출간된 『노마만리』 속에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김사량의 『노마만리』는 당시 조선의 지식인의 체험과 인식 속에 투영된 중국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국문학적 뿐만 아니라, 중국문학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할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김사량의 보고문학 속에 담겨진 중국체험과 중국인식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8)

2. 김사량 『노마만리』의 창작배경

김사량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고국에 남겨둔 채 평양을 떠나 연안으로 향한 것은 1945년 5월의 일이었다. 그는 연안으로 가는 도정 속에서 삼엄한 일체의 감시와 일본군의 공습, 그리고 그들의 포위망을 뚫어야 할만큼 적잖은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 앞날의 생사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그가 자신의 운명을 투신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그리고 그가 그러한 도정 속에서 보고자 했던 것, 쓰고자 했던 것, 그리고 새롭게 사유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그의 지나온 이력을 살펴봄으로써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가 두 번째 방중길에 올랐던 목적은, 당시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재지(在支) 조선 출신 학도병 위문단’으로서, 일본 제국주의와 천황을 위해 죽어가는 ‘황군(皇軍)’을 위무(慰撫)하는 데 있었다. 이 위문단은 김사량과 R여사(노천명 시인), 이렇게 두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김사량 본인은 이 계기를 통해 어떻게든 일제 식민통치지역을 탈출하여 종군 기자로서 팔로군에 합류하려는 속내를 품고 있었다.¹⁹⁾

그날 밤 나는 어머니와 아내에게 무량한 감개 속에 몇 장의 편지를 쓰게 되었다. 떠날 때의 암호대로 ‘여불비(餘不備)’라고 상서하여 드디어 떠나게 된 사정을 알게 한 것이다. 그리고 떠나는 날짜와 시간도 내박았다. ‘여불비’라고 쓴 편지가 마지막 편지인 줄 알도록 아내에게 이르고 떠난 것이다.²⁰⁾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김사량은 고국을 떠나기전 이미 가족들에게 자신의 탈출 의지를

18) 본고에서 인용한 『노마만리』의 내용은 김재용에 의해 실천문학사에서 출간된 것으로 한다. 『노마만리』는 1947년 10월 양서각(良書閣)에서 『노마만리』 상권으로 출판된 것이 최초이다. 국내에 소개된 『노마만리』의 판본은 총 3종류인데, 1989년 이상경에 의해 편집되고 동광출판사에서 출판한 것이 남한에서 출간된 최초의 판본이며, 그밖에 작가문화에서 2004년에 출간된 판본이 있다. 안우식, 위의 책, p. 332 참조.

19) 안우식, 위의 책, p.282~285 참조

20) 김사량 지음, 김재용 편주, 『노마만리』, 서울 : 실천문학사, 2002, p.51

암시하였고, 그들을 ‘장광도(長光島)’로 이주시켜 자신의 탈출소식이 사전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그는 조선총독부의 고급관리였던 형 김시명에게도 구두로 탈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²¹⁾ 그러나 몇몇 지인들은 비록 김사량으로부터 직접 전해듣지는 못했지만, 그의 탈출 의지를 암암리에 추측하고 있었던 듯하다.²²⁾

1945년 5월 경에 고향인 평양을 떠난 김사량²³⁾은 학도병 위문 기간에 지속적으로 연안으로의 탈출로를 찾기 위해 분망했다. 그는 서주(徐州)와 남경(南京)에서 미리 행동을 같이하기로 약속한 지인들을 만나고자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하릴없이 북경으로 돌아온 김사량은 북경반점(北京飯店)에 머무르며 향후의 계획을 고민했다. 북경반점에 머무른 지 사흘째 되는 날, 김사량은 그의 말마따나 ‘천행으로’ 로비에서 비밀공작원과 만나 연안으로의 탈출 루트를 안내받는다. 노모와 아내에게 보낼 편지와 아이들에게 건넬 선물을 귀국하는 노천명에게 전달하고 탈출길에 오른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다.

그렇다면 김사량으로 하여금 탈출에 대한 간절한 의지를 갖게 해준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그의 일대기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나, 소략하게나마 핵심적인 부분들만을 짚어보자면 다음과 같다.²⁴⁾ 우선 그는 중학생 신분으로 1929년에 촉발된 ‘광주항일운동’에 가담하였다가 퇴학을 당한 적이 있을 정도로, 소싯적부터 남다른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닌 청년이었으며, 중학시절부터 중국유학과 도미유학을 계획하는 등,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줄곧 자유를 갈망해왔다. 또한 항일운동과 동맹휴학을 주도하다 퇴학당한 후, 가족들의 권고로 어쩔 수 없이 떠난 일본유학을 통해, 그는 진보적인 학생들과 결성한 서클에서 마르크시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진보적 문예잡지인 『堤防』을 주도적으로 발간하면서 본격적인 체제비판적 문학활동을 전개한 경험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이력이 문제가 되어 그는 일제의 계속되는 사상탄압과 거듭되는 구류생활을 겪었고, 1938년 이래 국가 총동원령 발동, 국민징용제 실시, 창씨개명령 공포, 일어의 국어 상용화 등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신변의 위협을 받으며 ‘저항’과 ‘협력’의 갈림길에서 번민에 시달려야 했다. 이와 같은 외부적 상황과 내적 갈등 속에서 그는 탈출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극단으로 내몰렸던 것이다.²⁵⁾

특히 연안으로의 탈출 직전 보여준 김사량의 행적은 그가 자신의 양심과 자기 외부의 비참한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격심한 고뇌를 겪었는지를 가늠케 한다. 그는 유학시절 단편소설 「光の中に」(빛 속으로, 1939)를 집필하여, 1940년 상반기 아쿠타가와 상(賞) 후보로 선

21) 안우식, 위의 책, p.287 참조

22) 안우식, 위의 책, p.288~290 참조

23) 김사량이 평양을 떠난 시점, 그리고 『노마만리』의 도입부가 시작되는 시점은 의견이 매우 분분하다. 김사량은 『노마만리』의 도입부에서 학도병 위문을 마치고 연안으로 떠나기 직전 북경에서 체류했던 시점을 1945년 3월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분명한 오식(誤植)이다. 한편 김재용은 김사량이 평양을 떠난 시점을 1945년 5월 9일로 잡고 있고, 임종국의 「김사량론」에서는 그 시점을 5월 8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 역시 확실한 것은 아니다. 안우식의 『김사량 평전』에는 『노마만리』가 시작되는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담고 있다. 안우식은 나카조노 에이스케(中園英助)가 술회한 북경에 체류하던 김사량의 옷차림과 앞뒤 정황을 고려하여, 그 시점을 초여름, 대강 5월 정도로 잡고 있으며, 김사량이 평양을 떠난 것은 대강 3월 중순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고에서는 편의상 김재용과 임종국의 의견을 참조하여 김사량이 평양을 떠난 시점을 1945년 5월로 보도록 하겠다.

24) 김사량의 연안으로의 탈출 배경에 해당되는 내용은 안우식의 『김사량 평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25) 그런데 왜 그가 굳이 임시정부가 자리잡은 중경이 아닌 연안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국가와 민족의 신성한 이익을 배반하여 투항과 퇴각의 일로로 만리 오지로 도망친 중국 국민당”에 대한 김사량의 반감과 관련이 깊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장개석……이 던져주는 푼전으로 목을 축여가는 행랑살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유임하, 「사회주의적 근대 기획과 조국해방의 담론」, 『한국근대문학연구』, 태학사, 2000, p.179 참조.

출될 만큼 촉망받는 작가였다. 그러나 작품 안에 깃든 강한 민족의식으로 그는 일경(日警)의 요주의 인물이 되었다.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 동경(東京)에서 3개월 간의 구류생활²⁶⁾을 끝내자마자 ‘도망치듯’ 고국으로 돌아온 그는, 1942년 한 해 동안 어떠한 작품발표도 하지 않고 오로지 『太白山脈』 집필에만 몰두했다. 김사량은 이 작품을 1943년부터 이광수 등이 중심이 되어 발간하는 어용 문예지 『국민문학』에 연재하면서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한다. 또한 일제가 선정한 ‘해군과견단’의 일원으로 동경을 방문하고 나서 발표한 르포르 「海軍行」과 장편소설 『바다의 노래』는 명백히 어용적인 성격을 지닌 것들이었다. 물론 그는 이러한 자신의 행보에 거듭 절망감을 피력했고, 그러한 나락으로 자신을 몰아넣은 일제의 잔인성에 분노했지만, 어쨌거나 그가 1943년 한 해 동안 일제에 협력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듬해인 1944년부터 연안행 이전까지 김사량은 다시금 모든 집필활동을 중단하는데, 이는 그가 얼마나 자신의 창작활동의 성격에 대해 자책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김사량은 연안으로의 탈출을 성공한 후에, 『노마만리』에서 연안으로 탈출하기 전 고국에서 지냈던 몇 년 간에 대해 조국 앞에 충실하지 못했던 자신의 안일한 삶을 반성하며, 적을 좀더 미워하지 못했던 자신을 책망한다. 또한 그는 해방후인 1947년 『노마만리』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판은 그래도 내게 있어서는 생명을 바치자는 혁명에의 지향이며 출려였던 것이다.

도도한 탁류 속을 숨가빠 헤엄치던 생활이며 그야말로 도시 인텔리의 습속으로 무난한 살림살이에만 급급하려던 태도와 양심의 나래 아래 안한히 누워 있으려는, 그러되면 바스러질 만치 연약함이 유리알 같은 정신……. 이런 것에 대한 나 자신의 결별을 의미함이었다.

말하자면 이 길이 내게 있어서 탈피의 길이며 비약의 길이기를 원했던 것이다.²⁷⁾

이 기록은……우리 의용군이 잔포한 적군을 쳐물리치며 압록강을 건너 조국의 서울로 진군하는 장정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이로되,……하나 만약에 불행히도 조국 독립의 향연에 참례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필자 대신 이 기록이나마 우리 용사들의 채질하며 내달리는 병마의 등에 실려 서울로 입성하여 주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이는 우리 조국의 자유와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별바다도 한껏 먼 이역의 산야에서 싸우는 애국 열사들의 일을 사랑하는 국내 동포들에게 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²⁸⁾

결국 그가 연안으로의 탈출을 감행함으로써 성취하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위와 같은 자각과 반성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김사량이 문인으로 명성을 쌓아가던 일제말기는 일찍부터 품어온 그의 민족의식이 창작활동 속에서 자유롭게 발양될 수 없을 만큼 억압적인 상황의 연속이었다. 비록 일 년 남짓 기간동안 일제에 협력하는 글을 쓰기도 했지만, 나라를 잃고 사상과 창작의 자유마저 빼앗긴 지식인으로서 그는 깊은 고뇌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자신의 민족의식을 온존하고, 시대적 양심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망명 이외의

26) 이는 김사량의 두 차례 구류생활 중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잡지 『堤防』과 ‘조선예술좌’ 활동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의 구류생활은 1936과 1941년에 각각 한 차례씩 석 달에 걸쳐 있었다.

27) 김사량, 위의 책, p.25

28) 위의 책, p.27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일본과 고국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했는지를 자성하기 위해, 연안을 향한 위험한 노정에 격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노마만리』의 서장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듯이, 그는 조선의용군의 항일투쟁에 대한 기록을 통해 반제국주의 혁명에의 의지를 실현하고자 했다.²⁹⁾

3. 「노마만리」 속에 나타난 중국체험과 중국인식

3-1 북경체험과 근대도시 인식

김사량은 1938년 일 주일 여정으로 북경을 방문한 바 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鄉愁」라는 단편소설과 「北京往來」, 「에나멜 구두의 포로」를 창작한 바 있다. 이중 「鄉愁」는 항전기 일제에 대한 저항과 협력 사이에서 고뇌하면서 북경에 체재하고 있는 조선인 혁명가들의 심리와, 그들의 가슴 속에 깊숙이 스며있는 민족애와 향토애를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김윤식은 이 「鄉愁」와 『노마만리』가 내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작품들이라고 서술한 바 있다. 즉 「鄉愁」에 등장하는 옥상열은 『노마만리』의 김사량 자신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鄉愁」의 주인공 또한 이중어 글쓰기의 고통을 무의식적으로 토로하고 있는 작가 자신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시점의 북경을 소재로 한 위의 두 작품은 상당히 의미있는 연관성을 지닌다.³⁰⁾ 이러한 정황은 김사량에게 있어 북경이 남다른 의미가 있는 도시라는 사실을 가늠하게 해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김사량이 노천명과 학도병 위문을 마치고 북경에 도착한 것은 1945년 5월이었다. 그는 위문기간 동안, 일전에 연안으로의 탈출을 약속했던 몇몇 지우들을 만나 탈출로를 모색하려 했지만, 그들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고, 결국 그는 아무런 소득 없이 북경으로 돌아왔다. 따라서 북경에서 체류했던 며칠 간 그의 속내는 계획의 실패로 인한 실망감과 향후 어떻게 탈출을 감행할 것인가에 대한 근심, 그리고 일제치하의 북경에서 그의 기도가 탄로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 등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는 연안으로 탈출을 감행하기 전까지 줄곧 북경반점(北京飯店)에 머무르며, 앞날의 일에 대한 번민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그를 가두고 있던 절망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북경반점은 온갖 인간 군상들이 등장하는 희극무대와도 같았다.

화중 · 화북의 여러 도시와 오지로부터 안전 지대라고 찾아 몰려온 사람들로 들끓고 있는 것이다.……그 중에는 미어지게 배가 부른 아편장수도 있고 첩피 구두를 신고 빼

29) “김사량은 이 시기의 심리적 동기를 ‘모네티시즘’(기회주의)일지는 모르나 “해외의 혁명 역량에 대한 아름다운 꿈과 또 그곳에 뛰어들어서라도 같이 싸우겠다는 정열과 그들이 간고히 싸우고 있는 사실을 기록화하여 국내동포 앞에 알리겠다는 작가적 야심”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의 글, p.177에서 재인용. 이러한 김사량의 행보는 그와 마찬가지로 조선인의 비애를 모티프 삼아 일본문단에서 데뷔했다가 후일 황국문학의 기치 아래 투항한 장혁주의 말로와는 판이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철호, 「동양, 제국, 식민주체의 신생 - 1930년대 후반 김남천과 김사량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26집, 서울 : 2003, 동국대학교한국문학연구소, p.299, 김철, 「두 개의 거울 : 민족 담론의 자화상 그리기」, 『상허학보』 17집, 2006. 1 pp.153~157참조.

30) 김윤식, 「베이징, 1938년 5월에서 1945년 5월까지 - 김사량의 「향수」와 「노마만리」」, 『문학동네』, 2006년 여름호 참조.

거덕거리는 갈보장수도 있으며 혹은 화북권으로 환진하러 온 소왈(이른바) 사업가, 다시 말하면 송금 브로커—그리고는 대동아성 촉탁이니 군 촉탁, 총독부 촉탁이라는 명색 모를 사내와 이 밖에도 헌병대 사령부의 밀정 등등 별의별 종류의 인간이 다 들고 날치는 것이었다.³¹⁾

××악단의 공연을 보려고 북경 시내의 조선 사람이 물밀듯이 불러들기 시작하였다. 그중 흔한 국민복을 비롯하여 양복, 중국옷, 심지어는 일본 유카다까지 튀어들며 부너자는 너나없이 이방(異邦)의 간고한 살림살이에 부대끼어 얼굴이 깃누런 할머니, 어린애를 둘러업은 아주머니, 양장이 어울리지 않는 창기(娼妓)들이며 호화로운 옷차림의 매소부(賣笑婦)……모두 들어오며 떠들썩하니 고아댄다.³²⁾

위의 두 인용문에서 김사량은 자신의 시선을 빠르게 이동시키며 북경반점 안의 여러 인물들의 면면을 훑고 있다. 이러한 시선 이동은 파리의 아케이드를 걸으며 산보자들과 진열장 안을 향해 시선을 이동시키는 보들레르와 벤야민을 연상케 한다. 보들레르와 벤야민이 파리의 아케이드에서 경험한 근대인의 권태와 우울, 그리고 온갖 상품들의 어지러운 환등상(phantasmagoria)은 김사량이 전쟁 말기에 경험한, 쇠락해가는 북경의 이미지와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그는 각양각색의 인간들을 대하여 ‘정신을 차릴 도리가 없었다’거나 ‘눈알이 빙글빙글 돌지경이’었다고 술회한다. 북경반점은 방 한 칸을 숙객 한 사람이 독차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희극무대의 뒷면에는 쓸쓸한 비극이 상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제는 확연하게 패망의 지경으로 접어든 상태였고, 호화로운 북경반점 안에서 온갖 일들로 시시덕거리는 사람들의 ‘피 묻은 돈’은 머지않아 일제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저물어가는 일본 제국주의와 피점령지로서의 북경 사이에 가로놓인 묘한 분위기에는 당시 세태에 대한 작가의 풍자가 깃들여 있다.

하지만 그는 일제의 눈을 피해 탈출을 감행해야 하는 처지로서, 마냥 관찰자적 입장에서 그러한 세태를 비꼬며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고국에서의 온갖 감시와 신변의 위협을 견딜 수 없어 중국으로 도망쳐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북경이라고 해서 어찌 안심할 수 있었겠는가? 아래의 인용문에서는 적과 동지가 뒤섞여 혼란스런 당시 북경에 대한 작가의 우려를 엿볼 수 있다.

사실 1945년이란 시기의 조선은 참으로 형형색색의 인간을 창조하고 있었다. 아마도 모르기는 모르되, 이 북경천지에도 얼핏 보기에는 범놀음을 하는 범가죽을 쓴 개들이 많을 것이다.³³⁾

그는 북경반점을 ‘복마전(伏魔殿)’이 아닐까 하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히며, 같은 방을 사

31) 김사량, 위의 책, pp.33~34

32) 김사량, 위의 책, p.43

33) 김사량, 위의 책, p.46

용하는 ‘K’라는 인물이나 후일 자신의 연안탈출에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Y 거인’이라는 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다. 이러한 불안한 생각이 들면 들수록 그는 더더욱 연안으로의 탈출에 강한 집념을 보인다.

한편 그는 고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선물을 고르기 위해 노천명과 북경거리를 나섰다. 그러나 “일 년 전보다 열 배 이상의 엄청난 물가” 때문에 그는 자신의 “눈에 걸리는 것은 하나도 살 수 없었다.”³⁴⁾ 나중에 Y 거인의 격려금으로 아이들이 신을 가죽구두를 선물로 구입하긴 했지만, ‘열 배 이상의 물가’라는 대목은, 당시 일제 말 북경의 경제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열악한 것이었는지를 가늠하게 한다.³⁵⁾ 북경반점에서의 묘사와는 상반되게, “길가의 노점 앞에 웅크리고 앉아 콩죽을 훌쩍훌쩍 들이켜”³⁶⁾는 ‘양차꾼’들의 모습 속에서는 악화되는 경제상황 이외에도, 당시 일제치하 혹은 국민당 치하의 중국에 만연하던 확연한 빈부격차를 느끼게 한다.³⁷⁾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사량의 북경체험은 전쟁말의 혼란상과 일제치하의 삼엄한 분위기, 그리고 극도의 빈부격차에서 비롯된 민중들의 피폐한 삶을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근대도시로서의 북경의 면모는 뒤에 나오는 김사량의 해방구 체험과 극명히 대비되면서, 이 시기의 중국에 존재하는 상이한 두 세계에 대한 작가의 가치인식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3-2 농촌체험과 항전현실 인식

‘지긋지긋하고도 무서운 북경’을 떠난 김사량은 남방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창 밖의 한적한 시골풍경에서 마음의 위안을 받으며, 그는 가족과 동료들을 하나하나 떠올린다. 그러나 이러한 호사도 잠시, 그는 언제 시작될지 모를 일본군의 공습에 다시금 마음을 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당일 아침의 공습으로 교량이 끊어져, 열차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중국공산당의 항일 근거지가 가까워올수록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본군의 공습은 계속된다. 그가 타고 있던 열차도 한 차례 무시무시한 폭격을 감당해야 했다. 도중에 내려 마중을 나온 공작원들과 도보로 이동하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이동에도 위험이 없을 수 없었다. 도처에 깔려 있는 일본군경들의 감시와 비밀활동은 드넓은 들판과 아름다운 산세의 풍경과는 대조적인 전시 농촌의 흉흉함과 삭막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무자비한 전쟁 속에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모습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마을 곳곳에 전쟁의 참화를 견뎌낸 흔적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농민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 때때로 이름모를 전염병이 돌았고, 기후는 척박했으며, 이에 물산도 풍부할리 만무했다. 해방구에는 ‘吃’라는 말은 없고 ‘喝’라는 말만 있을 정도로 인민들의 생활은 열악했다. 김사량은 전쟁중의 마을과 그 속에 사는 중국 농민들의 궁핍한 면면을 다음과 같

34) 김사량, 위의 책, p.50

35) 본 고의 주 40)을 참고할 것.

36) 김사량, 위의 책, p.51

37)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이 시기 중국의 생산력은 구미 여러 나라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는 극심하여, 상층계급에 속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소비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데 반해, 60% 이상의 극빈계층은 의식주조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삶에 놓여 있었다. 张静如, 卞杏英 主编, 『国民政府统治时期中国社会之变迁』,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1993, pp.273~274 참조.

이 기록하였다.

일군의 토벌 침해가 얼마나 심했었는지 무너진 담, 떨어진 지붕, 총탄 자리, 불에 타 꺼멓게 죽은 나무, 너절하고도 스산한 마을이었다.

이따금씩 걸레처럼 말라빠진 개가 발밑을 달아나며 짖는다.

……사내는 주인 노부부를 서둘러 더운물을 끓여 먹인 뒤에 밀기와리떡에 고추와 마늘즙의 석찬을 내놓는다. 촌가로서 이게 고작 잘 먹는 음식이란 말에 이 부근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가히 추측할 수 있는 듯하였다.³⁸⁾

작품 속에는 민간인에 대한 일본군의 흉포함도 묘사되고 있다. 외아들과 며느리를 일본군에 의해 잃고 실성한 노파의 이야기와 더불어 아래의 인용문은 비인간적인 일본군의 잔인성을 격렬하게 폭로하고 있다.

일군이 소탕(토벌) 때에 몰고 들어온 군용건에 무고한 백성들이 물리어 살을 뜯기고 뼈를 갈리고 목숨을 잃은 일이 비밀비재였다. 민병 포로들을 나무에 끌어매고 주민을 모아다놓고 그 아버지, 어머니, 처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피에 주린 군용건을 풀어놓아 물어뜯어 죽이게 한 몸서리치는 일도 수도무룩하였다.……개는 그 셰퍼드 독특한 경경 소리를 내지르며 물려들었다. 용기를 내어 구해보려고 뛰쳐나오는 자는 동류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쏘아 죽였다. 씨알머리를 없애고자 함이다. 울음소리를 터치는 부인네가 있으면, 보라 우리는 양민을 해하지 않고 이런 년이나 잡아간다고 불들어다 씻을 수 없는 능욕을 주고 나서 환도로 목을 자르거나 총검으로 가슴패기를 찢었다.

……이 동네 역시 보잘것없는 조그만 동네이지만 거둬지는 일군의 침공에 행길의 황량하고도 쓸쓸함이 폐허나 다름 없었다. 쪼들어빠진 얼굴, 뼈만 남은 팔죽지, 헐벗은 옷, 손에 들고 씹어먹는 모래 같은 겨떡, 들이켜는 희물그레한 겨죽……. ³⁹⁾

상기 인용문에서 보듯, 항일기 농촌 민중들의 삶은 매우 위험하고 궁핍했다. 국민당 정권과 일제의 거둬지는 수탈 속에서, 일경의 끈덕진 감시와 일본군의 무차별적인 폭격 속에서, 그리고 이따금씩 찾아오는 온갖 종류의 자연재해들 속에서⁴⁰⁾, 그들은 이 드넓은 세상 가운데 안온히 밭 딛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배불리 먹고 따듯하게 입을 어떠한 수단도 갖지 못한 채, 황야의 마른 잔디마냥 이리저리 흔들리고 사방팔방으로 어지러이 부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사량은 이러한 중국인민들에게 커다란 동정심을 느끼는 한편, “우리에 못지않이 역시 불행한 민족”⁴¹⁾이라며 중국인민들에 대한 동질감을 갖기도 한다.

38) 김사량, 위의 책, p.78

39) 김사량, 위의 책, p.102

40) 실제로 연안 인근의 하남성(河南省)에서는 1933년에서 1934년 사이에 인구 3천만 명 가운데 천만 명이 재해를 입어 200~300만명의 주민이 기아(飢餓)로 숨졌다. 일본의 점령지에서는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을 수탈했는가 하면, 주요도시에 대해 폭격을 감행함으로써, 일례로 상해의 경우 일본군의 폭격으로 생산력의 50%가 파괴되기도 하였다. 张静如, 卞杏英 主编, 『国民政府统治时期中国社会之变迁』,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1993, pp.325~326 참조

41) 김사량, 위의 책, p.103

한편 장이 들어선 마을은 위와 사뭇 대조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항전기 중국의 열악한 경제 상황은 여기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나 있다.

긴 거리 양쪽에 노점이 늘어선 사이를 산사람들이 오르내리며 분요하게 떠들어댄다. 지저분하고 너절한 먼지투성이의 골목길이었다. 어디선지 땡그랑거리는 쇠소리, 동고 소리, 호공 소리도 들려온다. 잎담배, 가루담배, 쫄면, 이런 담배장수가 많다. 비누, 성냥, 손거울, 붓, 떡, 밀가루, 조, 강냉이, 천, 의복, 마구……과일은 살구, 복숭아, 능금, 참외, 수박, 호두, 거의 없는 것이 없다. 그리고 약장수, 신기료, 뽕장이, 이발사……. 모름지기 변구 산골짜기의 모습이 여신했다. 적지구의 삼분지 일도 안 되는 혈값으로 매매되며 화폐 가치는 또한 날로 오르고 있었다. 자작자급에 의하여 모든 부족을 참고 이겨나가려는 정부의 시책 때문에 일본 제품은 좀체로 받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으나 가다가다 찾아볼 수 있는 적지구산(産)의 칫솔, 만년필, 이런 것은 엄청나게 비싸다. 중국 장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옛말장수, 점쟁이, 이런 것은 역시 눈에 띄지 않는다. 그 대신 ‘타도 일본 제국주의’나 ‘반대 국민당 전정’ 등의 구호가 집집마다 담벽에, 기둥에 써여 있다.⁴²⁾

중일전쟁 발발 이래로 중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열악한 지경에 처해 있었다. 이는 국민당 지역과 연안지역이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1940년대 이후, 국민당군의 봉쇄와 일본군의 압박으로 인해 연안 지역은 국민당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⁴³⁾ 연안지역의 경우 1940년에 비해 1944년의 물가는 천 배 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인민들의 자력갱생과, 희생·봉사정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노마만리』에도 이러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인민들의 열정 어린 고투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⁴⁴⁾

이렇듯 김사량이 태항산으로 탈출하는 과정과, 탈출 후 경험한 중국의 농촌은 오랜 전쟁과 일본군의 무자비한 학살, 그리고 갖은 자연재해로 인한 곤궁과 비극적 외상들로 점철되어 있었다. 이로써 김사량은 중국 농민들의 삶으로부터 조선민들이 겪고 있던 시대적 아픔을 상기하고, 한중 양국의 민중들 사이에 일종의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3-3 해방구 체험과 사회주의 인식

42) 위의 책, pp.119~120

43) 중일전쟁기 국민당 지역과 연안 지역의 물가지수는 아래 도표와 같다.

	국민당 지배지역	연안지역
1937	100	100
1938	145	143
1939	323	237
1940	724	500
1941	1980	2200
1942	6620	9900
1943	22800	119900
1944	75500	564700
1945	179000	-

서진영 지음, 『중국혁명사』, 서울 : 한울 아카데미, 2002, p.284에서 재인용.

44) 김사량, 위의 책, pp.200~204 참조.

장이 들어선 마을 한 켠에는 ‘군복을 입은 단발 여병(女兵)’의 연설이 사람의 이목을 끌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었다. 연설자인 젊은 여병과 청중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있는 모습 속에서 김사량은 “정말로 새로운 땅, 미지의 나라에 왔다는 느낌”을 강렬하게 받으며, 그러한 시공간을 일컬어 “새로운 정의의 세계에 연결되”는 공간이요, “새 시대의 올리닫는 역사와 결부되는” 시간이라 기술하고 있다.⁴⁵⁾ 이는 온갖 억압과 감시와 불합리 속에서 전전긍긍하던 그의 젊음이, 해방구로의 탈출을 통해 얼마나 고양되어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어느 무너진 성문담벽에 적혀 있던 ‘중공10대정책⁴⁶⁾’과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 정책에 대한 김사량의 기록에도 중국 공산당에 대한 김사량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성문 담벽에 흰가루로 아름답게 중공10대정책(中共十大政策)이 써여 있었다. 1943년에 이르러 중공 중앙은 가장 간고스럽던 과거 이 년 동안에 걸쳐서 인민을 이끌고 과감한 대일 항전을 견지하고나서 승리에의 길로 발전하며 매진하기 위하여 감조감식제(減租減息制)를 단행하고 생산운동을 일으키며 옹정애민(擁政愛民)의 정책을 보다 더 강화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순서로 모두가 내전 분열을 피하여 외적을 물리치며 동시에 새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도 긴요한 군사, 정치, 경제, 문화 일반에 공한 정책이었다.⁴⁷⁾

참으로 내우외환이 겹중하는 이 나라의 일대 위기에 처하여 모주석이 제기한 신민주주의의 정책과 방향은 신중국의 나갈 길을 가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히었다. 이 신민주주의의 혁명강령이야말로 항전기의 칠칠암야(漆漆暗夜)를 밝히는 유일한 거화(炬火)였다. 항전 대중은 이 거화 속에 무한한 힘을 발견하여 용기를 북돋우고 일어나 어더한 악조건 밑에서라도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위하여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아 바치며 투쟁하기로 결의를 새로이 한 것이었다.⁴⁸⁾

군대와 대중에 대한 정치교육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군사·정치 위원회’와 같은 조직은 “군인의 정치적 자각과 병사(兵事)지식을 제고”하며, ‘문화·오락 위원회’는 “군인들의 시국 문제 토론을 지도하고 체육, 음악 등 문화 교양을 높이도록 노력한다.”⁴⁹⁾ 또한 ‘이동극단’은 마을을 순회하면서 연극공연을 개최하는데, 이로써 현실을 풍자하고, “봉건 지주와 군벌의 억압 밑에 노예 생활을 강요받던……농민 대중”⁵⁰⁾을 선전하며 계몽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45) 김사량, 위의 책, p.120

46) 중공10대정책은 1. 對敵鬪爭, 2. 精兵簡精, 3. 統一領導, 4. 擁政愛民, 5. 生産運動, 6. 整頓三風, 7. 三三制, 8. 減租減息, 9. 審查幹部, 10. 時事教育이다. 6항에서의 三風은 學風, 黨風, 文風이며, 7항의 三三制란 ‘공산당’, ‘국민당’, ‘무당무파’의 연합을 일컫는다. 김사량, 위의 책, p.156

47) 김사량, 위의 책, p.156

48) 김사량, 위의 책, p.157

49) 김사량, 위의 책, p.179

50) 김사량, 위의 책, p.232

더불어 김사량은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을 비교하면서 전자를 비판하고 후자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한다. 아래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우리 중국에는 두 가지의 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고 인민의 권리와 생활을 과멸케 하며 나라를 망치고 적을 이롭게 하는 국민당 정부의 반동 노선과 또 하나는 중국 인민이 한길로 통일되어 항일 역량의 총동원 밑에 적을 뿌드려 부수고 나라를 건질 수 있는 우리의 노선……. 장개석의 내전 정책 아래 침략자 일군은 안심하고 주요 군사력을 국민당 전장으로부터 점점 해방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당 정부도 또한 안심하고 통치구 내에서 일체의 민주 세력을 탄압하여 지하로 몰아넣고 언론을 봉쇄하며 수많은 청년 장교를 총살하고 애국 투사를 투옥한 것입니다.⁵¹⁾

국민당 군대는 이미 전의를 잃고 폐퇴의 일로를 달릴 뿐이었다. 중요한 도시를 마구 버리고 달아나며 전략 요지를 싸우지 않고 내어맡기고 혹은 총을 던지고 속속 투항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민당 정부의 내부도 여지없이 타락하고 부화하여 국가의 일대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관오리들이 국난재(國難財)의 편취를 능사로 하고 인민을 압박 착취하였다. 게다가 패주하는 군대까지 약탈을 자행하여 도탄에 든 백성들은 참담한 전화 속에 유리 전전하는 현상이었다.⁵²⁾

첫 번째 인용문은 팔로군의 한 간부로부터 취재한 내용이며, 두 번째 인용문은 작가 본인의 생각을 적은 것이다. 그러나 위의 내용은 비단 중국 공산당의 허위적 선전구호에 불과하거나, 김사량 본인의 주관적 감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연안을 방문한 여러 외국 인사들의 증언에서도 국민당의 약점과 공산당의 강점은 두드러지게 표현된 바 있다.⁵³⁾ 김사량 또한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 펼치는 인민주의적 정체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으며, 따라서 연안 기행을 통해 김사량은 “중국 내부의 사회주의적 근대 기획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해방 조국의 재건에 이바지하기를 원했던 것이다.⁵⁴⁾ 이와 같은 앞날에 대한 희망찬 감회 속에서 김사량은 “조국 내의 동포에게 언제든 알리고 싶은 일, 느끼는 일, 보고 들은 이야기, 이런 것 저런 것 모두 적어 하나하나 바람 속에 집어 넣”⁵⁵⁾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던 것이다.

51) 김사량, 위의 책, p.183

52) 김사량, 위의 책, pp. 227~228 1944년 4월부터 반 년간 전개된 일본군의 대공세 기간 중, 국민당 정부의 군사적·정치적 타격은 심각했다. 이 기간 중 국민당군은 30만의 사상자를 배출한 반면, 공산당군은 1944년 6월에서 이듬해 4월 사이에 47만 여명에서 91만 여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정규군 가운데 팔로군의 경우만을 합산한 것이고, 신사군과 민병의 수까지 더하면 같은 시기 350만에 달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진영, 위의 책, p.239~241와 유희탁, 『중일전쟁과 중국혁명』, 서울 : 일조각, 2003, p.146 참조.

53) “사실 국민당군에 의하여 포위 봉쇄된 공산당 지배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사들은 거의 모두가 중경과 연안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를 발견하고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이들에게 국민당 정부의 진수수도인 중경은 구 중국의 모든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반면에 연안은 신중국의 모든 강점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서진영, 위의 책, p.239 주17) 참조.

54) 유임하, 위의 글, p.175, 181 참조.

55) 김사량, 위의 책 p.26

위에서 서술한 김사량의 해방구 체험을 통해 우리는 중국공산당의 선전과 계몽으로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국민당과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식을 잃지 않고 자신들과 그들을 지도하는 중국공산당에게 시대적 정당성과 사명을 부여하는 중국 민중들의 정신을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우리는 김사량이 이러한 체험 속에서 사회주의적 근대기회를 해방 후 조국에 이식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4. 나오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김사량의 장편 기행서사 『노마만리』의 창작배경과 작품 속에 나타난 중국체험과 중국인식을 살펴보았다. 김사량은 일찍이 북경 유학을 꿈꿀 만큼,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지니고 있었다. 비록 외부적 악조건으로 인해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의 대학 졸업식에 참석하는 대신, 일주일 간의 북경 여행을 감행했던 그의 이력에서 우리는 모종의 ‘상징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 일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외세의 침략과, 일제의 식민지배라는 근대사의 험난한 굴곡을 겪어내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자기확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유학하여 영문으로 창작활동을 하고자 했던 학창시절 그의 저의에는, 식민지 시기 젊은 지식인의 역사적 문제의식을 문학의 힘을 빌어 세계 만방에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단지 사후적 해석에 불과할 뿐, 어떠한 사실적 담보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김사량이라는 한 작가 속에 내재해 있는 중국체험과 중국인식이, 젊은시절 상상으로 다져졌던 것이든, 후일 실제적 체험 속에서 조형되었던 것이든, ‘항일’과 ‘민족애’라는 맥락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김사량은 북경과 중국의 농촌, 그리고 해방구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중국 안에 존재하는 대조적인 두 세계를 경험하였고, 여기에 대한 가치인식을 통해 해방후 조국이 근대화를 위해 어떤 사상과 사회를 필요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였다. 그는 북경반점 안의 여러 인물군상들과 길거리의 양차꾼들을 보며 근대 산업자본주의가 빚은 빈부격차를 확인하였고, 농민들의 참상을 보며, 군국주의가 낳은 전쟁의 비극성을 목도하였다. 그러나 해방구에서 살아가는 민중들은, 비록 가난과 굶주림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을지라도, 중국공산당의 지도와 선전구호속에서 희망어린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다. 김사량은 해방구의 공산당과 민중들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조국의 사회주의적 근대기회를 마련하고자 했고, 『노마만리』를 통해 그러한 기획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는 십 대의 나이에 항일 민족의식에 고양되어, 민족감성이 묻어나는 수작(秀作)들을 다수 창작했던 민족 작가였고, 일제의 폭압을 벗어나기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조선의용군의 근거지인 연안 태항산 지구로 탈출하여, 그들의 실상에 대해 보고 듣고 느낀 바들을 기록한 저항적 문사였다. 또한 『노마만리』는 진보적 의식을 지닌 한 조선의 지식인이 일제 말 중국의 실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사(史)적 보고이자, 값진 문학작품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지난 반 세기 동안 분단체제의 삭막함에 기인하여 김사량 문학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지만, 향후 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그의 작품 속에 내재된 시대정신과 민족의식이 깊이 있게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기존 중국문학계가 중국작가들에 의해 표현된 중국적 문제들만을 다루어왔다면, 앞으로 우리 작가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또는 중국의 작가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우리의 문제에 보다 깊이 천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는 한-중 양국이 동일한 숙명에 처해 있던 시기였으며, 양국 공히 해방 후 조국의 근대화 도정에 대한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되었던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위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이 더욱 커다란 가치를 지닐 것이다.

<참고문헌>

- 단행본

- 고영일 주필, 윤병목 등 지음, 『중국항일전쟁과 조선민족』, 서울 : 백암, 2002
김사랑 지음, 김재용 편주, 『노마만리』, 서울 : 실천문학사, 2002
김재용, 이상경 책임편집, 『노마만리』, 서울 : 동광출판사, 1989
김사랑 작품집, 『빛 속으로』, 서울 : 소담출판사, 2001
김윤식 지음, 『일제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김재용, 김미란, 노혜경 편역, 『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 서울 : 역락, 2004
김재용, 김미란, 『식민주의와 협력』, 서울 : 역락, 2003
김재용 외 6인,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서울 : 역락, 2004
김재용 외 9인,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서울 : 역락, 2004
김재용, 『협력과 저항』, 서울 : 소명출판, 2004
김호웅, 김해양 편저, 『김학철 평전』, 서울 : 실천문학사, 2007
민족문학연구소 지음, 『탈식민주의를 넘어서』, 서울 : 소명출판, 2006
서진영 지음, 『중국혁명사』, 서울 : 한울 아카데미, 2002
송민호 지음, 『일제말 암흑기 문학연구』, 서울 : 새문사, 1991
안우식 지음, 심원섭 옮김 『김사랑 평전』, 서울 : 문학과 지성사, 2000
유휘탁 지음, 『중일전쟁과 중국혁명』, 서울 : 일조각, 2003
이경훈 편역 『한국 근대 일본어 소설선 1940-1944』, 서울 : 역락, 2007
임우식 저, 『친일문학론』, 서울 : 민족문제연구소, 2002
정명자 지음, 『인물로 읽는 러시아 문학』, 서울 : 한길사, 2001
에드가 스노우 지음, 홍수원 옮김, 『중국의 붉은 별』, 서울 : 두레, 2000
남 웨일즈, 김산 지음, 송영인 옮김, 『아리랑』, 서울 : 동녘, 2005
고바야시 히데오 지음, 임성모 옮김, 『만철(滿鐵)』, 서울 : 산처럼, 2002
安宇植 著, 『金史良』 東京 : 岩破新書, 1972
张静如, 卞杏英 主编, 『国民政府统治时期中国社会之变迁』, 北京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1993
唐金海, 周斌主编, 『20世纪中国文学通史』, 上海 : 东方出版中心, 2003
陈丕显, 『苏中解放区十年』, 上海 : 上海人民出版社, 1988
王瑶, 周扬等编, 『中国文学史通览』, 北京 : 东方出版中心, 2005

- 논문류

- 김남일, 「시계종이에 쓴 역사 - 김사랑의 『노마만리』 행적을 따라서」, 『실천문학』, 2002년 겨울호
김은정, 「김사랑의 초기작품 연구」, 한국어문학연구회, 2003. 2
김윤식, 「베이징, 1938년 5월에서 1945년 5월까지 - 김사랑의 「향수」와 「노마만리」」, 『문학동네』, 2006년 여름호
김재용, 「일제말 김사랑 문학의 저항과 양극성」, 『실천문학』, 2006년 가을호
김 철, 「두 개의 거울 : 민족 담론의 자화상 그리기」, 『상허학보』 17집, 2006. 1

- 방민호, 「일제말기 문학인들의 대일 협력 유형과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22집, 2007.8
- 사회영, 「식민지 작가 김사량 연구」, 『日本語文學』 第29輯, 2006. 1
- 유임하, 「사회주의적 근대 기획과 조국해방의 담론」, 『한국근대문학연구』, 태학사, 2000
- 이철호, 「동양, 제국, 식민주체의 신생 - 1930년대 후반 김남천과 김사량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26집, 서울 : 2003, 동국대학교한국문학연구소
- 이춘매, 「金史良의 <駑馬萬里>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23집』, 2008. 4
- 조성환, 「북경의 기억, 그리고 서사된 북경」, 『中國學』 第27輯, 2006. 12
- 王文军, 「论20世纪30年代中国报告文学的文体特质 : 宣传性」, 『中国学』 第24輯, 2005. 8

Abstract

The experiences and recognition of China showed in Kim Sa-Ryang's 『Nomamanri(駑馬萬里)』

Park, Min-Ho / Park, Nam-Yong

Kim Sa-Ryang is a Korean fictionist played an active part in the literary world in the period of the Japanese rule in Korea. He couldn't endure the ages of Japanese oppression, extricate himself from homeland to Yun-An(延安) in 1945. 『No'ma'manri(駑馬萬里)』 is his long piece travel sketch published in 1947, It describes the Beijing, Chinese farm villages, and the Chinese Communists anti-Japanese struggled in Yun-An. It is important work in that it has been the first realistic document of Yun-An in China written by Korean writer. Moreover he expressed national consciousness and social criticism in his work, so we can understand how the intellectual of Korea viewed the matters of contemporary China.

keywords : Kim Sa-Ryang, No'ma'manri, Beijing, Mt. Tahang, reportage, anti-Japanese literature